

發見된 狩獵文甌에서 野兔의 모습에서도 보았거니와(陳列品圖鑑第十一), 直接 이것과 構圖上으로 가까운것은 慶州南山里 長倉에서 發見된 平瓦 側邊文樣에 左右對稱으로 疾走하는 天馬의 모습이다. (新羅古瓦譜第一 輯第十二圖의一) 그리고 日本의 正倉院의 木畫紫檀棊局의 側面 左側區 劃中에서 三驅가 같은 方向으로 疾走하는 모습이 있는데 倣 鬚은 四肢의 모습은 唐代畫風의 普通된 手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統一期의 骨壺에서 우리는 橢圓形의 花文을 볼 수 있으며 특히 陳列品 圖鑑第一輯에 紹介된 骨壺에서 여기의 花文과 꼭같은 型을 보며 또 肩部에 달린 四個의 獸首도 注意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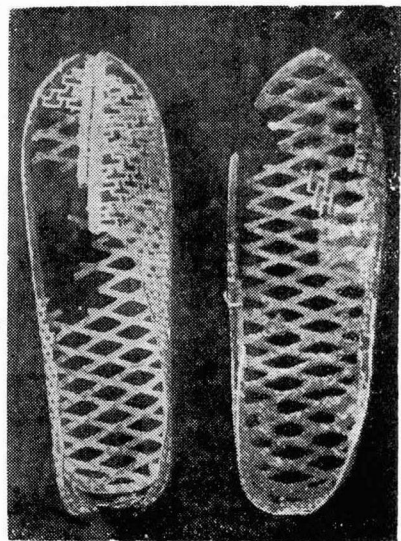
만약 이 土器를 推測한 바와 같이 方形 臺器 또는 几案類로 본다면 果然 然어면 用具이었을까 비록 土器일 망정 側面의 이와 같은 圖案의 素材와 手法은 正倉院의 豪華로운 棊局이나 雙六局과 치는 바는 없는 것이며 또 크기에 있어서도 이것을 方形의 橫面으로 본다면 正倉院所藏品의 橫三二櫃 高一六·七櫃(이 土器는 側面 三五櫃 高一七櫃)와 비슷한 點이 있는 것은 偶然의 一致라 할까

金銅履의 新例

黃 壽 永

一九六二年十一月 梨花女大 博物館에서 蔣奎緒氏의 厚意로 調査한 金銅履一足이 同年夏頃에 忠南公州附近에서 出土되었다고 傳하는 바 屨의 前部가 破損되었으나 原形復元이 容易할 뿐 아니라 鍍金이 거의 全面에 燦然히 남아 있는 稀貴한 遺品이다. 더욱이 그 形態가 三國期의 古墳出土例와 同식이나 全體에 透刻紋이 彫飾되었고 手法이 매우 洗練 溫雅함에서 注目되었다.

形式은 매우 簡單하다. 먼저 亞字紋을 透刻한 二枚의 얇은 銅板으로 身部를 마련하여 그 前額部와 後踵部에서 緣板을 모아 또는 合쳐서 銅線



또는 木으로서 連結 固定시켰으며 下緣에 이르러 底板을 없도록 안으로 屈曲시켰다. 底面에는 菱形紋을 透刻한 一枚板을 이 身部 下端과 銅線으로 連絡시켰고 外底 先端가 がい 方錐形의 木五

個씩을 작은 木으로 固定시켰다. 構造上 매우 軟弱하여 實用의 目的은 아니었을 것이니 他例와 같이 屍身에 쓰이었던 儀式用인 造型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屨의 「蹠」을 영상시킨이 있듯 短緣部를 除外하고는 整齊한 透刻文이 滿鏤되어 있는 것도 그 作風과 더불어 年代의 降下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三國末의 作品으로 推定하여 둔다. 그러므로 羅州 潘南面古墳出土金銅履(註(國博陳列)와 對比되어야 할 點을 附言하면서 간단히 紹介함에 그치고자 한다. (一九六三·一一·五記)

長三〇cm 高前部에서九cm 後部에서八·二cm 幅前一〇cm 後七·三cm

(註) 梅原末治·羅州潘南面の寶冠(金銅沓實測圖)

(附記) 慶州金冠塚出土飾履身部に 透刻文(一)이 있다(慶州金冠塚と其

遺寶)上册參照)

康津出土 己酉銘銅鐘

崔 淳 雨

지난 一月初 康津郡 大口面 堂前里에서 出土되어 國立博物館에 所藏된 高麗梵鐘一口를 紹介해 둔다. 이 鍾은 總高二四·三cm 口徑一七·三